책임지고 무책임하라

(마태복음 11:20~30)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책임지고 무책임하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책임지고 무책임하라'
우리는 결코 책임감을 느끼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책임감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는 바로 원죄의 효과 때문입니다. 이 불필요한 책임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책임감을 버리는 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책임지고 무책임하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은 책임감을 느끼는 일들에 무책임하게 되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다지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을 믿으면 편하고 쉽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된 후로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고 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열쇠는 앞 단락에서 나타납니다. 25~26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아야 예수님께 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상태를 벗고 쉼을 얻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란 천국이 가까이 옴으로써 발생하게 된 "인간 실존상황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신 것은 사실입

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구조 또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는 자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들이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이전 설교에서 백설 공주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순백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전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적 주제였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뒤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전파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옴으로써 “인간의 실존상황의 변화”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5절에서 말씀하신 “이것”의 내용입니다. 이 인간 실존상황의 변화를 모르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쉼을 얻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타락 전에 아담이 의식을 가지고 처음 만난 대상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의 마음에서 자신의 몸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대상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도를 지난 설교에서 거리감이라는 개념을 통해 살펴본 바 있습니다. 다시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아담의 마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담의 몸이 있고 또 몸으로 만나는 삶이 존재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책임지실 수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의미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담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판단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책임이었고 아담의 책임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곧 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의 책임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책임을 잘 수행할 때에 아담이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이 타락하면서 아담의 마음은 하나님을 지나쳐서 몸이 만나는 세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몸이 만나는 영역에 대해 책임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로 인한 타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기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지나치지 않을 때에 마음은 하늘로 연결되고 몸으

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지나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원죄의 습성으로 인해 예수님을 지나쳐서 마음이 몸으로 만나는 대상들을 향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삶에서 생겨나는 모든 책임감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나칠 때에 발생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배우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입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을 느낀다면 예수님을 지나쳐서 몸으로 만나는 배우자에게 마음을 보냈다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고백과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이나 일에 책임감을 느끼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종교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본래 복음은 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책임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복음 속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감은 오직 예수이름의 낚시 바늘에 낚여서 가까이 온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삶에서 책임지고 있는 일들이 잘되기 위해 내 힘으로 안 되겠으니 신을 만들어냅니다.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삶의 주권자가 되어 신을 낚고자 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를 낚고 어떤 사람은 마호메트를 낚으며 또 어떤 사람은 삼신할머니를 낚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 대한 책임 자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마음을 낚아서 가까이 온 천국으로 데려가시고자 하십니다. 그럴 때에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한편 우리는 책임감의 혼돈 속에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자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부모를 예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때에 세 가지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빗겨나가고 예수님을 지나쳐가는 죄를 짓습니다. 또 본래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자녀라는 대상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짐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없게 만드는 방해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도 망하고 내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대상도 망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이 이토록 무섭습니다.
우리는 실존의 상황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서 가장 가까운 대상은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수직으로 연결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천국에 가 있는 동안에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이 실존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때에 책임감의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책임감이야 말로 내가 대적하고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할 때에 세상에 대해서는 무책임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설교의 댓글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한 분이 “세상에 붙잡힌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면서 자녀의 결혼이나 취직 문제에 대해서도 절대로 기도하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십자가생활화를 하는 분들에게서도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책임감의 혼동이 드러납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에는 책임감의 회피가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책임의 회피가 더러워진 마음이 깨끗해질 기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내려놓는 것조차 불가능하지만 설령 내려놓는다고 하여도 이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로 세상에 대해서 무책임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과 문제를 내려놓고 외면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결혼과 취직의 문제에 대해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인간 실존상황의 변화”라는 개념을 통해 정답이 제시됩니다. 부모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것은 몸을 통해 만나는 자녀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몸으로 만나는 자녀에게 마음을 보낸다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 와 계신 예수님을 지나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결코 가장 가까이에 와 계신 예수님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은 오직 예수님 따라 마음을 천국으로 보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몸으로 만나는 자녀의 취직이나 결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결혼할 자녀를 위해 좋은 중매 자리를 알아보는 것은 나의 책임도 아니며 기도할 제목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무책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마음을 연합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녀의 결혼 문제나 취직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내가 자녀의 결혼에 대해 책임을 지고자 한다면 죄악이고 원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나의 마음에 이식하라는 말씀입니다.
온유는 사람을 향한 친절이나 다정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 성전을 정화하실 때나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 질책하실 때에 온유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항상 온유하셨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25절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봅니다.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명령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당연히 내 삶과 자녀의 삶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의 의미 또한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주인으로써 다스리실 것입니다. 설령 자녀의 나이가 많고 결혼할 기미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30살에만 결혼을 시키셨어도 지금쯤 손자들이 있었을 텐데요.”라고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자녀의 결혼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결혼을 시키시든 안 시키시든 취직을 하게 하시든 못하게 하시든 자녀의 문제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책임감을 느낀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결코 성실하다고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을 천지의 주재로써 인정하지 않는 죄악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온유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부드럽고 유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겸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안 풀리는 것이 걱정된다고 해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교만한 일입니다. 스스로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재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또한 자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려한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무서운 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을까요?
본문 20절을 보면 가버나움에 대한 책망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잘못됨을 지적하며 회개하기를 요청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행하시며 회개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으셨던 일은 예수님의 자의적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권능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자의 대표가 되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즉 온유하고 겸손할 때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책임감을 느끼시며 권능으로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감은 삶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감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쪽을 향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마음이 머물며 천국을 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일에 대해서만 책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 대해 책임을 느낄 때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지나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죄악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나타내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책임지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 삶에 대해 책임지려고 하였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편 30절을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가벼운 이유는 행위로 지는 십자가가 아닌 마음으로 지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수소를 넣은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하늘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마음을 가볍게 할 때에 마음은 천국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으로 만나는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내가 바라고 세상이 좋다고 여기는 방향과 일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든지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많은데도 결혼을 못한다고 하여도 그로 인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빨리 결혼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만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지고 무책임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드려 머물게 함으로써 몸으로 만나는 삶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몸과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며 또한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장갑 삼으실 것입니다.
책임지고 무책임하기 위해서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음으로 밝히 바라봄으로써 내 마음이 결코 주님을 지나치지 않게 해주셔서 몸과 몸으로 만나는 삶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무책임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나의 삶에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더라도 온유와 겸손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